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EU 금융시스템감독 개혁에 대한 의구심 지속

□ 지난 3월 EU 금융시스템 개혁(안)이 각국에 전달된 이후 9월23일 유로지역 정상들이 전폭 동의함으로써 유로의회 상정만 남겨놓고 있으나, 각국은 감독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임.

-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과연 범유로감독기구가 각국의 감독당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려짐.
-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개혁(안)이 제시한 대로 각국의 재정에 대한 독립을 어떤 과정을 통해 보장해줄 수 있는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개별 산업 중에서 보험권은 감독개혁(안)에서 보험산업은 주도적이지 못한 입장에 처해있으며, 범유로감독기구의 수장이 은행권에서 선출될 경우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감독상에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범유로감독기구가 각국의 감독기관과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배권이 범유로감독기구에 편중됨으로써 FSA와 같은 감독당국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개혁(안)에 따른 범유로감독체제 재정이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개혁(안)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간 3,700만 유로(3,300만 파운드, 5,500만 달러)의 재정은 FSA의 연간 재정인 4억1,500만 파운드나, 미국의 증권·선물위원회의 9억 달러에 크게 부족한 실정임.

EU 금융시스템감독 개혁 일지

일자	내용
2008년 10월	EC, 전 프랑스은행장인 Jacque de Larosiere에게 유럽금융감독에 대한 연구 의뢰
2009년 2월	Jacque de Larosiere, 거시적 안목의 신 감독체제 개선안 제출
2009년 3월	개선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수렴. 영국 등 일부국가 신감독기구의 각국 재정정책 개입에 대한 의구심 제기
2009년 5월	EC, 개혁안에 대한 세부안 마련
2009년 6월	EU 재무장관, 세부안에 대한 기본적 동의. 재정정책 등에 대한 의견 조율 시작
2009년 9월	EC, 법안 상정. 10월중 유로의회와 회원국의 승인 심리 예정. 2010년 시행 예상

□ 한편, EU 금융시스템 개혁(안)은 거시적 리스크를 관리할 EU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Council)와 미시적 금융감독을 맡게 될 EU금융감독기구(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임.

(Financial Times, 9/24)